

消費者에게 充實한 情報提供을

朴 東 璿

(韓國消費者保護院 首席理事)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지난 30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한 끝에 수입보험료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었으며 GNP에 대비해서도 이미 보험선진국의 모습을 갖춘 셈이다.

그 동안 보험산업은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소비자들의 경제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경제성장을 위한 국내산업자본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상적인 외형규모와 거시적인 평가만으로는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실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주로 가격과 관련이 깊은 생명보험을 보더라도 외형성장위주의 경영으로 소비자들의 이익 보다는 기업의 자체이윤추구에 기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또 그 구조상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해 온 것도 부인키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자동차보험도 국민경제생활과 깊숙히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자동차사고에 따른 보상문제는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사고피해자간의 이해를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자동차보험이 안고 있는 제도적인 취약점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같은 인식이 깊어짐에 따라 보험산업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자구책을 강구하려는 보험소비자 보호운동이 조직화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런 일일 것이다.

또한 개방화 물결이 우리의 보험산업에까지 밀치고 들어와 이에 적절히 대응키 위한 보험기업들의 경영체질개선은 물론 보험정책방향의 전환문제까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비추어 보험문제에 관한 이론구성 및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보험산업을 선도할 보험개발원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할 것이다.

보험소비자 보호측면과 보험산업발전의 균형된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의 소박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보험상품은 일반 제조상품과는 달리 무형의 제화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상품선택이나 구매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소비자는 모집인의 일방적인 설명에 의해 정보를 얻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들의 정보제공 방법과 내용에는 편견과 부정확

한 측면도 없지 않아 상당한 정도의 부실계약과 높은 중도해약율을 발생시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는 물론 보험산업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에 창간되는 “보험개발연구”지를 비롯한 각종 홍보물을 널리 확산, 보급하여 소비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긴요하고 정확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제공은 보험상품의 透明性を 제고시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함은 물론 기업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한 상품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건전한 보험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신뢰성 있는 요율산정과 배당을 위한 각종 위험통계의 분류, 집적은 물론 보험회계제도, 자

산의 시장평가방법 등을 개발하여 보험소비자간의 형평을 기하고 보험업이 사회공공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면 한다.

셋째로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제도 등 소비자와 관련이 깊은 각종보험제도를 연구, 개발하여 우리나라 여건에 알맞는 제도개선책과 장기적인 제도 정착방안을 강구하는 등 보험산업의 두뇌역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활발히 개진됨으로써 보험정책결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동의 場이 제공되었으면 한다.

우리보험분야의 길잡이가 될 “보험개발연구”의 창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보험개발원의 앞날에도 번영과 발전이 충만하기를 기원한다.

調査研究와 政策開發努力을 期待

趙 海 均

(韓國保險學會 會長, 漢陽大學校 敎授)

資本主義經濟體制下에서는 기업이 어떠한 상품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가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간섭하거나 규제를 하지 않고 기업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保險商品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無形의 商品인 동시에 抽象的商品이며 信用商品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保險約款의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保險會社가 保險商品의 內容, 條件, 價格 그리고 責任準備金의 算出 등에 있어서 自律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면 보험사업이 사

행적으로 운영될 위험이 존재하여 소비자권익에도 피해를 주게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保險會社가 보험상품의 내용, 조건, 가격 그리고 책임준비금산출 등의 측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지 않고 客觀的이며 中立的 立場에 있는 전문기관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조건, 보험요율 그리고 책임준비금 등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保險業法 제198조 2의 규정에 의하여 保險開發院이 지난해 말에 설립하게 되었다.

保險料算出의 기초가 되는 각종의 요소는 경제 환경, 사회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서 부단히 변화되기 때문에 保險開發院은 보험료산정에 필요한 제반 정보,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전산관리하여 필요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또한 保險開發院은 소비자욕구에 부응한 新商品의 開發에 주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保險商品의 內容과 約款의 內容 등의 資料와 情報 등을 수집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自律競爭時代와 完全開放時代에 대비하여

歐美諸國家의 保險市場에서 商品競爭, 價格競爭, 서어비스競爭 등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競爭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積立金制度, 經營評價制度, 早期警報制度, Solvency制度, 保證基金制度 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調査, 研究活動을 강화하여 保險政策開發에 필요한 政策資料를 적시에 제공하여 주는 역할을 수행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對內外 與件變化에 부응한 保險政策의 開發이 매우 곤란하게 된 시기에 保險開發院의 조사연구와 정책개발노력에 많은 기대를 가지는 바이다.

生保産業의 未來에 관한 研究에 重點을

崔 丙 億

(大韓生命保險株式會社 社長)

保險産業에 開放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3년이 지난 지금은 保險에 종사하는 우리 모두가 새차게 흐르는 開放이라는 물결의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日淺한 보험역사 때문에 保險産業의 도입기에서 부터 성장기까지 制度와 技術의 많은 부문에서 이웃나라를 모방해 왔다고 보면, 이제는 한국의 보험 산업도 성장위주로 달려왔던 지난날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독자적인 制度와 技術을 개발하여야 할 시기라고 본다.

그러나 새롭게 변화하는 보험 환경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과거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허락하지 않고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벌써 保險市場 開放의 영향으로 보험업계에는 기존의 회사와 개방후 설립된 회사 사이에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공방이 일었고,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販賣채널(Channel)면에서도 지금까지는 소홀히 해왔거나, 활용하려 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金融産業의 國際化와 綜合化 현상은 금융산업 내부에서 각 업종간의 연계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保險業界는 그 영역의 확대와 금융업종간 연결에 따른 기술개발에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변화의 시점에서 保險産業의 건전한 발전

을 위해서 합리적인 保險料率의 산출과 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보험에 관한 각종 정보를 관리하는 임무를 가지고 출범한 保險開發院에 대해서 보험계약자, 보험사업자, 관련기관 등이 거는 기대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保險開發院이 발족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生命保險會社의 최고 경영자 중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는 바를 다음의 몇가지로 要約하여 이야기하고 싶다.

첫째는 生命保險產業의 未來에 관한 研究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生命保險產業은 규모면에서나 金融產業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면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生命保險產業이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크게 증대되었고, 그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서는 金融產業전반의 변화속에서 生命保險會社는 앞으로 어떠한 目標를 가지고, 어떻게 經營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줄 수 있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둘째는 保險開發院의 조사연구 활동과 政策開發은 우리나라의 보험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바탕위에서 실제에 적용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주는 方向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나라에 많은 研究機關이 있지만 각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결과를 보면 실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아 실질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이는 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歷史的인 考察이 간과되고, 우리 나름의 현실적인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

상으로, 연구 또는 정책의 내용이 극히 총론적이고 思辨的으로 흘러 구체적인 적용과 실행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保險開發院의 연구와 정책개발은 현실적인 상황을 토대로하고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이루어졌으면 한다.

세째는 研究調查活動은 국내의 여러 연구기관과 상호연계관계를 가져 保險開發院의 경비출연기관이자 사원회사인 36개의 회사가 개별적으로 조사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자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를 기대한다.

보험과 관련된 연구기관으로는 국내에도 여러 學會, 協會, 특수자격단체, 大學 등이 있으며 歐美와 日本에도 유사한 기관과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연구단체들이 보험산업 발전과 교육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험과 관련하여 연구를 주요업무로 하는 단체가 없다는 점에서 이제부터는 保險開發院에서 국내의 각 연구기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保險會社에서 필요한 정보를 어느때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保險業界 공동의 課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業界의 협조를 받아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주길 요청하고 싶다.

生命保險 業界의 과제들 중에는 특정 1개회사의 노력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여러가지의 과제들이 있다. 예를들면, 생명보험의 保險料를 결정하는 經驗生命表는 각 회사의 기초자료가 종합되고 補正의 과정도 거쳐야 작성이 가능하며, 아직까지도 入院率은 우리나라의 基礎資料가 없어 일본의 것을 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生命保險 業界의 주요 공동과제는 生命保險會社와 관련기관

의 협조를 얻어서 保險開發院이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길 원한다.

지금까지 保險開發院이 개원하여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生命保險會社의 경영자의 한사람으로 保險開發院에 바라는 내용의 일단을 피력하였다. 아무쪼록 保險開發院이 보험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나라에서는 최초의 전문연구단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保險制度和技術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 땅에 심어져 結實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專門性和 技術性的 提高를

孫 京 植

(安國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社長)

보험산업의 國際化, 開放化가 급속히 進展되고 Consumerism이 크게 擡頭되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保險開發院이 料率算定會에서 擴大·改編되어 專門保險研究機關으로 새로이 出帆하게 된 것을 祝賀하며, 앞으로 보험산업 발전에 많은 寄與가 있기를 期待한다.

그간 우리 保險의 역사가 70餘年に 이르면서도 保險産業의 發展이 遲滯되어 왔음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겠으나, 보험사업의 根幹이 되는 統計專門機關의 歷史가 日淺한데에 緣由하는 바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에 「客觀的이고 中立的인 立場에서 保險料率을 算出, 檢證하고 各種 保險關聯 情報나 統計資料를 集積, 管理·分析하는 일을 專擔할 保險開發院」이 法的 뒷받침과 더불어 出帆하게 된 것은 매우 鼓舞的인 일이라 하겠다. 이를 契機로 保險開發院은 料率算定에 필요한 基礎統計를 충분히 確保하고, 專門性和 技術性を 提高시킴으로써, 이 나라 保險産業의 發展에 큰 힘이 되어주기 바라며, 同

時에 消費者로 하여금 保險料率의 客觀, 妥當性を 認定케 하고 信賴性を 確保하는데 모든 努力을 傾注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保險開發院은 當初의 設立趣旨에 맞추어 앞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힘써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保險은 統計를 基礎로 하는 制度이므로, 보다 合理的이고 科學的이며 信賴할 수 있는 統計를 얻는 것이 重要的한 바,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統計開發이 必要하다고 본다. 물론 現行 統計體制가 過去에 비해 많이 發展된 것이기는 하나, 先進水準에 비하면 아직도 未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保險開發院은 統計集團의 內容과 有用性を 잘 把握하고, 그 活用度를 勸案하여 보다 精密한 統計計劃下에 先進 統計開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料率算定 專門機關으로서의 專門性, 公正性を 堅持하여 保險料率의 適正性 確保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先進國에 비해 規模가 작기는 하나 格式을 갖춘 料率算定 專門機關이 出帆한지 7년이 지난

오늘에도 保險料의 適正性 與否를 놓고 계속적으로 與論에 오르내리는 등 論難이 되어오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이 出帆한 保險開發院이 어느 때보다 獨自의이고 中立的인 位置를 堅持하면서 정확한 經驗통계를 토대로 公正하고 적절한 율을 산정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율산정의 전문성, 합리성을 확보하고, 산정된 율이나 검증결과에 대해서는 對國民 案內를 통해 合理的인 信賴와 共感帶를 형성해 나가는데 心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공익성이 큰 自動車保險의 境遇는 보다 公正하고 合理的으로 統計를 신속히 處理함으로써 保險契約者에게는 물론 國民 모두가 사실을 올바르게 認知하고 認識토록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 나갔으면 한다.

셋째로는 標準約款의 開發等 保險制度의 研究開發에 加一層 努力해야 할 것이다. 保險料率이 一般製造商品의 價格에 해당한다면 約款이나 制度는 商品內容 自體일 것이다. 따라서 客觀, 妥當한 料率을 算出하는 일은 물론 保險契約 當事者들이 無理없이 受容하고 理解하기 쉬운, 標準約款이나 制度를 開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몇가지 保險開發院의 役割과 發展方向에 대해 照明해 보았거니와, 이제 保險業界에 從事하는 한 사람으로서 保險開發院이 國民, 社會, 保險事業者 모두가 所望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기를 希望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提言코자 한다.

먼저 社員會社에 대한 充實한 서비스 提供이 있었으면 한다. 美國의 I.S.O.나 日本의 料算會 등은 모두 料率算定이나 契約引受에 필요한 統計와 情報를 生産, 提供함으로써 社員會社의 便益을 圖謀해 오고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保險開發院도 율을 산

정의 主管機關으로서, 電算을 비롯한 技術開發과 Know-how의 蓄積을 통해 專門保險研究機關으로서의 位相과 面貌를 갖추는 한편, 그렇게 하여 얻어진 成果들은 業界가 함께 共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둘째로는, 항상 料率算出의 基本原則을 遵守하여 適正하고 合理的인 율을 산출하는 機關으로서 國民들로부터 公信力을 確保하는데 全力을 다하였으면 한다. 保險料率을 算出·檢證하는 機關이 國民이나 社會로부터 公信力을 認定받지 못하면 그 存在意味를 喪失하는 것이기에 이점 再三 強調하는 바이다.

끝으로 한가지 더 敷衍한다면 이 모든 일을 원만히 遂行하고, 신뢰받는 율산정 専門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專門人力의 養成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고 싶다.

최근 우리 保險業界는 美國에 대한 市場開放에 이어 우루과이라운드協商 等を 통해 諸先進國들이 加해오고 있는 開放壓力에 直面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對應方案 마련에 腐心하고 있는 實情이다. 또한 消費者 大衆은 알 權利를 主張하는 한편, 스스로 權益을 保護받고자 利益團體를 構成하여 業界가 受容하기 어려운 無理한 要求를 隨時로 해오고 있다. 이에 더하여 政府는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對國民 서비스 改善 및 充實化에 最善을 다할 것을 憑해 오고 있는 터이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속에서 出帆한 保險開發院에 대해 國民과 業界가 거는 期待는 어느 때보다 큰 것인 바, 모쪼록 公信力있는 專門保險研究機關으로서의 맡은바 責務를 다하여 우리 保險產業이 技術적으로 進一步하고 先進化하는데 牽引車 役을 맡아 주었으면 한다.